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화통신

姜 又 蘭*

통신은 정보산업 사회의 정수일 뿐 아니라, 광섬유 케이블과 휴대용 전화기 등의 호재 덕분에 전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히 성장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이 글에서는, 극단적으로 다양한 경제 발전 정도를 가진 국가들이 혼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몇몇 나라를 선별해 그들의 전화 통신 사업 현황과 미래를 살펴보겠다. 통신산업은 물론, 하부구조(infrastructure)적 측면, 즉 전선 등 설비 공사의 측면과, 전화기와 전화 사용에 관련되는 제조·서비스 측면으로 나뉘어지지만, 여기서는 그런 구분없이 각국의 전화통신 사업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겠다.

전화 통신, 超國的인 틈 비즈니스

전세계의 전화 등록자는 5억 5천만 명에 이른다. 그런데 이 등록자들이 어느 나라에 어느 정도로 편재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수가 되는 것이 인구 對比 전화 번호 수, 이른바 '전화밀도(tele-density)'인데, 이 지수들을 일견하는 것만으로도 전화통신 산업

의 잠재성이 얼마나 방대한지 알 수 있다 (<그림 1>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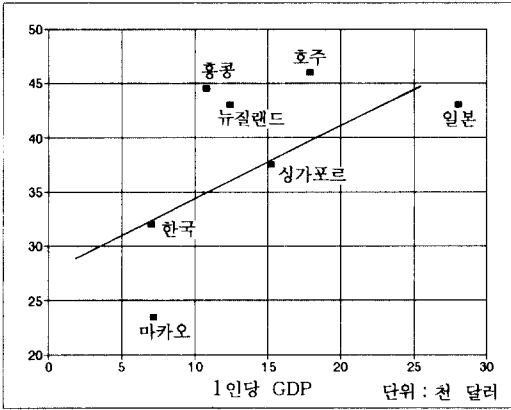
<그림 1>의 그래프를 보면 인도나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그리고 중국과 같이 경제성장 속도가 빠른 개발도상국들의 전화 밀도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이 드러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내 低소득국들의 인구는 합계 28억인데 비해 전화선은 2천 5백만 개에 불과하다. 이 나라들에 있어서 전화 설비 확대는 향후 경제발전의 주요 요건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각국 정부는 전화통신 사업을 발전시킬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전화통신 사업의 잠재성은 전화 밀도가 낮은 개발도상국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화 밀도가 상당히 높은 일본이나 홍콩, 싱가포르, 호주, 한국의 경우에서도, 신소재 전화케이블과 이동통신 시장이 확장 일로에 있어 통신 산업의 전망은 매우 밝다. 여기에는, 소득 수준은 낮지만 재래식 구리 케이블의 설비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 중국과 같은 나라는 - 가구당 2천 달러 이상 - 이동통신에 있어서도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특히 휴대용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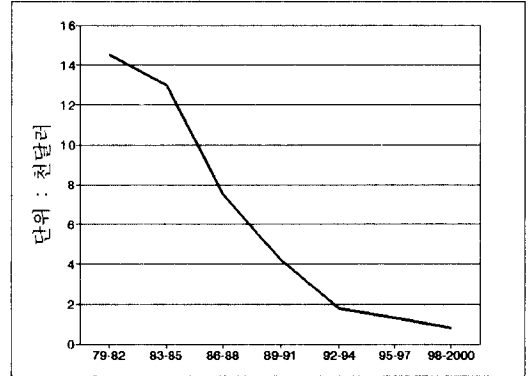
* 객원연구원, London School of Economics, 경제학 박사, 조직행동·노사관계 전공.

<그림 1> 전화 밀도와 富

1백명당 전화회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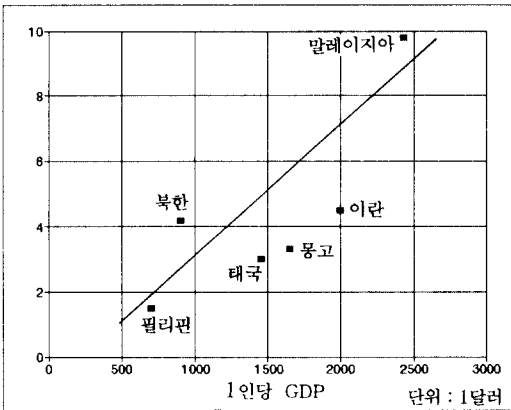


<그림 2> 휴대용 전화 네트워크를 건설하는 나라들의 1인당 GDP



출처: Herschel Shosteck Associ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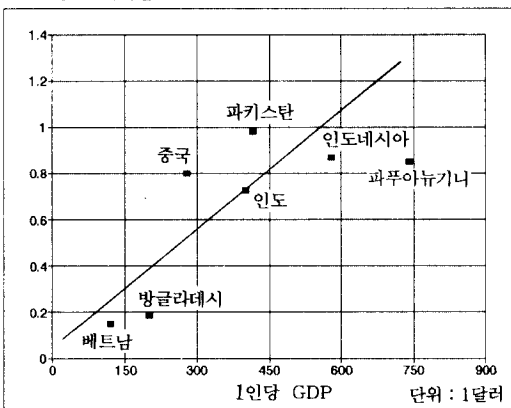
1백명당 전화회선



화기의 대당 가격이 매년 25%씩 하락하고 있는 덕분에, 개발도상 국의 휴대용 전화 네트워크 도입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그림 2>참조). 그럼, 국가별 상황이 어떤지 살펴 보자.

중 국

1백명당 전화회선



자료: ITU. 1993. Asia Pacific Telecommunications indicators.

중국 정부는 2000년까지 최소한 4,000만 개의 새로운 전화 회선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듯 엄청난 사업 기회를 놓고 서구의 주요 통신기기 회사들은 중국 시장 공략에 주력하고 있는데, 이미 진출해 있는 회사 중에서는 프랑스의 알카텔(Alcatel)이 선두에 있고 그 뒤를 독일의 지멘스(Siemens)와 일본의 NEC가 추격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 선점에서는 뒤졌지만 미국의 AT & T가 중국 진출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한편, 기기 부문과는 달리 전화교환 사업에 있어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문호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국내외 민간 기업의 투자가 있더라도 경영권은 체신부 소관이다. 그러나, 빼이징에만 70여 개의 민간 호출 통신사들이 난립해 있는 실정이고, 홍콩 기업인 챔피언社(Champion Technology)가 사천성 지역 휴대용 전화 네트워크 사업의 40% 지분 (미화 3천만 달러 투자)을 가지게 된 상황에서 체신부의 독점 경영권이 과연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민간으로의 이전과 대외 문호 개방이 거의 시간 문제로 보인다. 기업의 요구가 그러할 뿐만 아니라, 체신부 독점에 불만인 정부 3개 부처 (철도, 전기, 전자), 그리고 중국인민은행과 인민해방군이 압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다.

홍 콩

홍콩의 국내 유선 전화통신은 이번 7월에 독점 해제된다. 이 부분에 참여할 회사는 허치슨 통신 (Hutchison Communications), New T & T, 그리고 New World Telephone 3 개社인데, 각각이 컨소시엄인 이 회사들은 모두 115억 홍콩달러를 투자해 유선 네트워크를 건설할 계획이다. 그리고 홍콩의 전화 이용자들은 이들 3사 간의 경쟁 덕분에 17억 홍콩달러를 절약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유선 전화 네트워크는 무선에 비해 엄청난

비용의 초기 설비 투자를 필요로 하지만 용량이 이동통신에 비해 훨씬 크고 비디오 시그널과 컴퓨터 데이터를 송신할 수 있다는 잇점을 가진다. 국제 통화는 홍콩통신공사(Hongkong Telecom)이 계속 독점을 유지할 것이다.

이동통신은 홍콩의 가장 활기찬 시장을 확보하고 있다. 극도의 교통 체증이 소비자를誘引하고, 통신 시장에 대한 低규제가 기업들을誘引하기 때문이다. 홍콩에는 모두 4개의 휴대용 전화통신회사 (Hongkong 통신공사 CSL, 허치슨, 퍼시픽 링크, 스마트 톤)가 경쟁하고 있는데 당국은 앞으로 더 많은 회사를 참여시킬 계획이다. 휴대용 전화번호 등록자는 인구의 5%에 이른다. 호출기 회사는 모두 34 개사이며 인구 6명당 1명 꼴로 호출기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비율은 세계 최고이다. 그리고 CT2 (무선 전화기 제 2세대)라는 새로운 형태의 전화기가 2년 전에 선보였는데, 벌써 13만 명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CT2는 전화를 걸 수만 있고 받을 수는 없는 전화로, 포켓 속의 공중전화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치열한 경쟁이 1997년 중국으로의 복귀 이후 어떻게 변화할지는 알 수 없으나, 홍콩의 전화통신 시장은 지금 한창 달아오르고 있다.

일 본

일본 체신부는 지금까지 휴대용 전화기를

임차만 할 수 있도록 하던 규제를 풀고 올 4월 1일부로 매매를 허용했다. 이 규제 완화로 휴대용 전화기의 급속한 확대가 예상되는데, 일본의 휴대용 전화기 임대자는 1988~91년 기간 평균 연 79%씩 증가하다가 지난 2년간은 불황등의 요인으로 정체 상태에 있었다.

일본에는 현재 3개의 이동통신사가 존재하며 4월 1일부터 2개사가 더 가세한다. 기존의 3개사 중 NTT만이 완전한 전국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DDI는 도쿄와 나고야를 제외한 전국, IDO는 반대로 도쿄와 나고야만을 커버하고 있다. 신규 업체인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일본통신공사 소유)과 두-까 그룹(DDI와 닛산의 합작회사)은 둘다 도쿄, 나고야, 간사이 지역에 네트워크를 건설한다.

이번의 脫규제로 일본 이동통신사 간의 경쟁이 심화될 것은 분명하나, 그렇다고 홍콩이나 미국의 정도까지 뜨거워지지는 않으리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기술상의 분할 즉, 아날로그와 디지털 간의 분할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쟁에 일정한 한계가 그려지는 데 있다.

일본 통신산업의 호재로 최근 PHP(Personal Handy Phone)이 등장했다. 이 전화기는 사정거리가 불과 200미터에 지나지 않지만, 회사 사무실이나 가정에 베이스를 설치하면 다수의 전화번호가 제공되므로 직원 전체 또는 가족 전체가 개인 전화를 한

대씩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CT2와 달리 전화를 걸 수도 받을 수도 있다.

올해 1월 일본 체신부는, 첨단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주요 미래 산업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이 멀티미디어 산업은 2010년경 240만명의 새로운 고용을 창출하고 1조 1,380억 달러의 외형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태 국

폭발적인 수요 증가를 맞고 있는 태국의 전화통신은, 현재의 250만 회선으로는 수요의 절반밖에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비효율적이기로 악명높은 두 개의 통신 당국, 즉 국제전화 서비스를 담당하는 CAT (Communications Authority of Thailand)와 국내 담당인 TOT(Telephone Organisation of Thailand)는 각각 공군과 육군에 의해 관리되다시피 하며, 민영화에 소극적이다.

최근 이 두 통신당국이 어쩔 수 없이 이동통신과 위성통신 부분을 민간기업인 텔레콤아시아(TelecomAsia)와 슈나와트라(Shinawatra)에게 이양하였는데, 이 회사들은 CAT와 TOT와의 관계를 호전시킬 일환으로 자사 주식을 시세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으로 CAT와 TOT 종업원들에게 팔고 있다. 이 유효작전이 주효했는지, TOT는 최근 텔레콤아시아가 유선

TV와 광섬유케이블 용으로 광케이블 200만 회선을 방콕 시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는 아·태 지역에서 가장 먼저 통신 민영화를 실시한 나라 중 하나이다. 현재 말레이시아 통신(Telekom Malaysia)은 두번째로 큰 상장회사로, 주식자본이 미화 163억 달러에 이른다. 유선전화 서비스는 아직 말레이시아 통신이 거의 독점하고 있으며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경쟁자의 진출이 허용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동통신의 경우 현재 4개사가 경쟁하고 있다. 그 중 최대인 셀콤(Celcom)이 이동통신 시장의 60% 정도를 점하고 있는데, 셀콤은 올해 가입자를 20만에서 50만으로 증가시킨다는 목표를 수립해 놓고 있다.

말레이시아는 지난 수년간 고속 성장을 해 왔고 그에 따라 증시가 호황을 맞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휴대용 전화기도 월 1만 5,000대 이상의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이런 양적 증가는 매우 심각한 회선 적체 현상을 빚고 있어 네트워크의 확장이 시급하다.

호 주

호주의 통신산업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연

방정부 소속의 3개 기구, 즉, 호주텔레콤(Australian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해외텔레콤(Overseas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 OTC), 그리고 오삿(Ausat)에 의해 운영되고 있었지만, 최근 급격한 변화를 맞고 있다. 우선, 국내통신 담당인 호주텔레콤과 국제전화 담당인 OTC가 지난 1992년에 합병, 텔스트라(Telstra)로 명명되었다. 텔스트라는 아직 연방정부 하에 있지만 부분적인 민영화, 또는 민간기업과의 합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한편, 영·미·호주의 다국적 컨소시엄인 옵터스(Optus)가 같은해 제2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며, 국내 위성통신 담당인 오삿은 옵터스에 매각되었다. 이동통신사로 시작한 옵터스는 작년에 장거리 전화 서비스로도 진출했으며, 빠르게 시장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다. 호주 정부는 현재 두개 회사에 의해 과점 중인 호주 통신 산업을 1997년 중반까지 완전 경쟁화시킬 계획이며, 작년 10월 영국의 보다폰(Vodafone)이 제3사업자로 선정된 이동통신 부문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

참고문헌

Economist 각호.

Far Eastern Economic Review 각호.

Financial Times 각호.